

2019 새 설계

송 귀 군 고흥군수

“미래비전 1·3·0... 멋·맛·흥 가득한 ‘休토피아 고흥’ 총력”

예산 1조원 군민소득 3천만원 인구감소율 제로화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3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행정 철학을 그대로 군정에 녹여내 ‘원칙, 균형, 투명’을 군정 철학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를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고흥의 약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군수는 군정비전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를 실행하기 위해 ‘미래비전 1·3·0플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비전 1·3·0플랜이란 예산규모를 7020억원에서 1조원으로, 군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을 202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구감소율은 제로화(0)에 도전한다는 실행계획이다.

송 군수는 올해 군정의 첫 번째 정책으로 인구유입을 극대화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하는 ‘돌아오고 살기좋은 사람 인(in) 고흥’ 만들기를 꼽았다.

송 군수는 “인구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고흥에 와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과 일자리, 자금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흥 출신 청년들이 고흥에 돌아와 정착할

귀농·귀촌 정착 자금 지원
고흥 쌀 명품화 소득 향상
웰빙 유아·석류 특구 운영

수 있도록 주거자금 지원과 귀향 청년 정착 장려금 등 지역출신 귀향인에게 체계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학교를 만들어 귀촌에 필요한 사전교육과 귀촌할 때까지 숙소를 제공해 줄 계획이다.

군은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 정주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청년 창업물,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소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송 군수는 ‘군민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첨단 스마트팜 클러스터 구축과 고흥 쌀 명품화, 웰빙 고소득 과수 육성, 지역 특화 양념 채소 개선 등으로 소득을 높일 전략이다.

이와 함께 웰빙 유아·석류 지역 특구 운영 등 6차 산업화에도 매진하고, 해조류 생산산업 현대화와 조개류, 육·해상 양식 등 수산업 지원도 확대할 예

정이다.

축산업의 경우 고흥 한우 우수형통 생산기반 지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축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소득지원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확대,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축산업 재해보험료 인하를 단행한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가족처럼 보살피는 ‘따뜻한 나눔 공동체’ 실현도 약속했다.

송 군수는 “많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가족처럼 보살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살피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공약사항으로 시행하고 군 51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순회 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 먹고 자고 가는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는 ‘멋·맛·흥이 가득한 휴(休)토피아 고흥’을 열어 나가는 시책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김여사 박물관,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고흥만 대규모 꽃단지, 녹동항 해양공원 야간 경관 등 다양한 관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흥 일주 해안도로 중 미개통 구간을 개설하고 소록도와 금산의 역사 유적지를 관광지로 재창조한다.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고르게 잘사는 ‘군민소득 3000시대’
- ▲남녀노소 모두 ‘따뜻한 나눔 공동체’
- ▲내 집값이 편안한 ‘행복터전 고흥’
- ▲군민이 칭찬하는 ‘365 감동 고흥’

관광 콘텐츠 다양화와 관련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천경자 화백 아트파크, 목일신 작가 자전거 박물관 등 우리 지역의 특성과 고흥 출신 인물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 소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리로 변화시키고, 고흥 대표 축제인 유아·석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목표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내 집 같이 편안한 행복터전 고흥’을 구현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끝으로 송귀군 고흥군수는 “2019년은 우리가 꿈꾸는 고흥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본격적으로 질주하는 한 해가 되어야한다”면서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올해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희망찬 고흥, 잘 사는 고흥’을 만들어가기 위해 뛰고 또 뛸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청

이달말까지 152가구 대상

곡성군은 오는 1월말까지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군의 사업 목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127가구, 자봉개량

25가구 등 총 152가구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억200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행 전에 슬레이트를 철거한 건축물은 지원하지 않으며, 2월초까지 대상자를 선정 후 3월부터 적격업체를 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보성차밭 빛 축제’ 20만명 다녀가... 겨울축제 자리매김

보성군은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에 전국의 관광객 20만여명이 다녀가며 겨울철 인기 축제 자리매김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성차밭축제는 지난달 14일 개막해 31일동안 겨울밤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으며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다. (사진)

군에 따르면 축제기간 집계된 입장권 판매 수익만 2억원을 넘어서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동절기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이번 빛 축제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매일 밤 흰 눈이 내리는 보성차밭에 만송이 LED차꽃과 눈사

람, 디지털 나무 등을 설치해 차밭과 공원 일대를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였다.

또 연인, 친구, 가족, 동료들이 사연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롭게 선보인 에어돔 하우스는 썬터이자 빛 체험장으로 사용됐으며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푸근한 공간으로 방문객의 호평을 받았다.

문화장터는 주전부리 코너, 농특산품 판매장, 보성군새마을회가 운영하는 식당 등으로 꾸러졌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경찰, 독거노인 7세대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보성경찰이 새해를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눔 배달 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진행된 연탄 배달 봉사에서는 서정순 경찰서장을 비롯해 청림 동아리 회원 30명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보성군지부 등이 함께 지역 독거노인 7세대에 연탄 300장씩 총 2100장을 배달했다.

서정순 보성경찰서장은 “전달한 연탄 한 장 한 장이 주민들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게 봉사 활동을 펼쳐 주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보성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세일글

“고객감동 경영 지역민 최상 서비스”

임성재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고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최근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에 취임한 임성재(54)지부장은 “고향에서 일하게되어 기쁘다”면서 “고흥지부 직원들과 함께 고객감동경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항상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

고 있다는 임 지 부장은 “지역민과 함께하고 상생하는 농협을 만들는데 노력하겠다.”

도양읍 시산 출신인 임 지부장은 녹동고과 경기대를 졸업하고 1995년에 농협에 입사해 구례군 농정지원단과 본부 신용보증부에서 근무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구례군,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참가자 2000명 모집

구례군은 ‘2019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아이언맨구례코리아)를 오는 9월22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철인3종경기는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로 한 선수가 3개 종목 226km(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를 17시간 이내에 휴식없이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개최된 대회에는 36개국에서 1363명이 참가했고, 이 중 외국인 선수가

536명으로 전체 참가선수의 39%를 차지하며 국제대회의 면모를 과시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올해 대회 참가접수를 시작했으며 선착순으로 2000명을 모집한다. 또 국내외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가비는 2월28일까지는 550달러이며,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650달러와 750달러로 책정됐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